

쓰레기가
황금알이 되는
지구지원
이야기

천정곤의 지구를 살리는 자원순환 이야기

천정곤 자음

★★★ 신지식인 천정곤 회장의 글을 추천합니다. ★★★

천정곤 회장과 내가 가족처럼 지낸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천정곤 회장을 만날 때마다 그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나이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천정곤 회장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그 속에서 황금알을 찾아내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입니다. 그해 6월에 재활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천 회장에게는 특별한 별명이 따라 다니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알을 캐는 사나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별명은 2004년에 천 회장이 손수 자신의 체험담을 써서 펴낸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천 회장은 글자 그대로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을 캐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쓰레기 더미에서 그는 황금을 캐내고 주위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 주며 환경을 지키고 사업을 일으키는 일을 동시에 일구어냈습니다.

그런 그의 업적이 평가를 받아 국내에서는 일찍이 신지식인으로 뽑힌 바 있고 환경부장관상, 국무총리상 등 그의 업적에 걸맞은 상을 골고루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과 생각, 사업과 꿈은 국 내를 벗어나 중국, 일본을 넘어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2년 전 중국에서 번역 출간된 그의 저서는 중국인들에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정계, 경제계 인사들이 그를 높이 평가하여 그는 저명인사의 대열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가 더욱 고마운 것은 그가 쓰레기 더미에서 사업만을 일군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통일 한국시대를 대비하는 꿈까지 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21세기 세계의 환경을 지키자는 환경운동가이며 통일 한국시대의 경제와 환경,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염려하는 애국자입니다. 바라건대 많은 젊은이가 천정곤 회장의 삶과 생각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 제2, 제3의 천정곤 회장이 계속 이어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